

노보살 50여명 19년간 정성껏 지은 절 경주 수도사 조계종에 기증

신도들이 19년간 힘 모아 지은 절을 조계종에 등록했다. 극락원보살(80세)등 50여 노보살들은 19년간 정성껏 지은 수도사(경주시 외동읍 냉천2리 세터)가 3월30일 성원스님(강화 선원사주지)을 통해 종단에 등록했다. 수도사는 10일 현관식과 종단등록기법법회를 병행한다. 수도사는 17명 법당과 명부전

종각 산신각 용왕당 3층석탑 석불입상 일주문을 갖추고 불자들이 자체적으로 초하루, 보름법회를 열어왔다. 수도사는 77년 부산에 살던 극락원 보살을 비롯한 노보살들이 아끼기 위해 가시밭으로 변한 폐가를 구입하고 19년간 같이 일하며 일궈낸 사찰. 최근에는 IMF시대에 불교하고 심시일만으로

보시하여 청기와 불사와 주변정리를 완료했다. "스님이 오셔서 좋은 도량으로 바뀌어주셨으면 그만이지요." 수도사 창건에 앞장서온 극락원보살은 "불사들과 함께 법회를 열면서 삶이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살다보면 세상은 밝아진다는 믿음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수도사를 일군 노보살들 가운데

데는 자녀를 출가시킨 신도도 3명이나 되는 등 불자로서 보여주는 돈독한 신심은 남다르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단체나 사찰에도 적극 도움을 주고 있다. 관각성지인 강화 선원사 복원불사를 위해서도 1천만원을 희사했다.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 성원스님을 뵈었지요. 스님이 강화도 전등사에서 선원사지 복원을 열원하며 기도할 때 인연을 맺었습니다." 성원스님은 "수도사를 종단에 증여한 노보살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와 수행도량으로 사찰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노보살들이 지어 조계종에 증여한 수도사 전경.

뉴스 & 뉴스

환경부,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전국 20개 국립공원 구역지정이 전면 재조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의 구역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정밀 조사해 불필요하게 사유권을 침해하거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가려내 구역역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타당성 재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은 20개 국립공원을 6상대형 보전형 △자연경관형 △문화사적형 등 세 유형으로 분류 각각 유형에 맞게 구역역을 재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불학연 연구원 10명 위촉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는 선원종량 발전을 비롯 종단 승가교육체계방안연구 활성화를 위한 비상근 연구원 10명을 30일 위촉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연구원은 종호(동국대 강사), 광경(동국대 박사과정 수료), 효탄(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사), 권영(동국대 강사), 묘주(동국대 강사), 유진스님(동국대 강사)과 이기운(동국대 경희대 강사), 이방용(고려대 중앙승가대 강사), 최연식씨(서울대 가톨릭대 강사) 등이다.

일산 포교당 '법계사' 개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법계사(주지 지상)가 새롭게 단장했다. 1백31평의 대지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된 법계사는 3월 31일 인관(前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법상(무신법장사 주지) 홍선스님(흥국사 주지)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신도시 포교인력을 다졌다.

동산반야회 청년회 창립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 청년회가 23일 오후 7시 창립법회를 갖는다. 3월22일 법기인 도임을 가진 동산반야회 청년회는 창립과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정기법회와 아이법회 등을 통해 청년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청년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공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인사 '대중공양의집' 개설

마산 정인사(주지 원행) 신도들은 지난해 8월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에 마련한 20여평의 무료급식장을 확대해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공양을 제공하는 '대중공양의집'을 개설했다. 자원봉사자 70여명이 운영하고 있는 '대중공양의 집' 이용자는 현재 2백여명, 지역주민들도 고기와 찜닭 등 부식을 제공하고 있다.

11일 선덕여왕 순모제

선덕여왕순모제(회장 최정숙)가 주최하는 제12회 선덕여왕 순모제가 11일 오전10시30분 팔공산 부인사에서 봉행된다. 삼국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선덕여왕을 기리는 순모제는 매년 음력3월보름 부인사에서 봉행되어 왔다.

불교귀농학교 '문 열다'

한달간 이론교육후 실상사서 현장실습

조계종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스님, 실상사 주지)는 3월28일 오후3시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개교식을 갖고 한달간의 이론교육에 들어갔다. 귀농희망자 64명이 참석한 개교식에서 교장 도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농사는 생명을 살리는 불사이자 생명산업"이라며 "바람직한 삶의 문화를 갖기 위한 지혜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도시인들이 농업에 일으키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 도시를 품어안는 농

촌공동체 마을을 건설하는 일에 불교가 앞장서려 한다"면서 "불교귀농학교에서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왜 귀농인가"란 주제로 첫번째 강의를 나선 이병철 전국 귀농운동본부장은 "귀농은 자신의 삶을 이웃과 자연과 함께 자연친화적, 생태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며 공동체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새로운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68세의 노인



불교귀농학교 교장 도법스님이 입학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소장 고려금동불 등 5점 실종

거래과정서 도난 고려시대 금동여래좌상 등 개인 소장하고 있던 국보급문화재 5점이 거래과정에서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일 문화재를 모박물건에 고가로 팔아주겠다고 속여 가로천 신승석(4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신씨가 96년 7월 문화재수집가 하의주(68)씨로부터 넘겨받은 문화재는 고려초기 금동여래좌상

(시가 4억원)을 비롯 고려중기 금동보살좌상 2점(3억원), 조선 초기 금강경목판(2억5천만원), 통일신라 초기 신라주철여인입상(2억5천만원) 등 5점. 95년 6월부터 6개월간 용인 호암미술관에서 열린 '세계불교문화대전'에도 전시돼 관심을 끌었던 작품들이다. 경찰은 신씨로부터 금동보살좌상 2점을 서울 인사동 모화당에 맡기고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다른 문화재의 행방을 캐고 있다.

(김형요씨)과 23세의 신세대여성(박정서씨)도 참가했다. 실상사 현장교육은 5월 8~11일 진행된다(정원 40명). 귀농학교는 1달~2달간의 장기귀농학교도 개설할 예정이다.

영화 '성철' 상영금지 문도회, 가처분신청

5월 개봉을 앞둔 영화 '성철'(감독 박철수)이 난관에 봉착했다. 불필스님과 성철스님문도회는 2일 영화 성철이 '성철스님의 명예와 불교사상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제작사인 월드시네맥을 상대로 영화제작 및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문도회는 신청서에서 "영화의 내용이 성철스님의 출가배경을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고 스님의 돈오돈수 사상과 현대불교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영화가 제작돼 상영될 경우 스님의 초상권과 종교지도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철, 법어내용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음력 3월 불사 전국사찰 '한창'

전국의 각 사찰에서 3월(음력)불사가 한창이다. 올 3월불사는 신심함양과 함께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기간동안 각 사찰은 보살계수계산림, 정대불사, 가사불사, 수륙제 등이 주요 행사로 펼쳐진다. 순천 송광사(주지 현교)는 보조국사 제788회 종재일을 맞아 21일부터 23일 까지 3일간 3월 불사를 봉행한다. 송광사는 이 기간 동안 3년간의 가사불사회향식을 비롯 보살계수계산림, 보조국사 종재가 펼쳐진다. 조계종립법장에 추대된 보성스님의 개당설법도 마련된다.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와 서산대사 478주기 탄신대례, 제4회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등을 봉행했다.

종교계 참여 '실업대책기구' 추진

정부노동계 '합의'

노사정위원장 한광국 국민회의 부총재와 노동계대표인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은 1일 국경3대 현안중 하나인 실업문제와 관련 대담을 갖고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단체 노사정이 참여하는 범국민 실업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현재 종교단체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

종 실업지구제나 대책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종교계와 노사정위원이 참여하는 실업대책기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은 1일 아시아유법정상회의(ASEM) 참석차 영국으로 가던중 특별기내에서 "실업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과후 고강도의 종합실업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윤리교과서 21곳 불교용어 표기 오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관련 용어가 잘못 표기되거나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21곳이나 돼 개정 또는 해설첨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김형중교법사(명성여중)가 조사한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에 대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불타로, 부처님오신날은 석가탄신

기념일로, 부처님 생일연대는 1956년 방콕 세계불교대회에서 공인한 불기에 따라 BC624~544년으로 써야 하는데 BC563~483년으로 표기됐다. 이밖에도 불교용어 및 역사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심수 전원 석방 불교대책 불교대책위 추진

'양심수 전원 석방 불교대책위'가 발족된다.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교계단체 대표들은 4일 양심수 전원 석방 불교대책위 실무자 회의를 갖고, 발대식 일정을 논의하는 등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불족 제등행렬에 사용된 동국대 코끼리 장엄물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됐다.

3월31일 새벽 0시30분경, 대학본관 뒤편에 놓여있던 코끼리상에 불길기 치솟는 것을 순찰을 돌던 수위가 발견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고 부분과 네 다리를 제외하고는 이미 전소가 된 후였다. 94년과 96년에도 제등행렬을 앞두고 이같은 일이 있었다. 벌써 세 번째 맞는 코끼리상의 수난이다. 사건 이후 불교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석림회, 순승사관후보생회, 불교학생회가 나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희성·불교학부3)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다만 해마다 부처님오신

날을 앞둔 시점에서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교도에 의한 것이 아닐까'하는 심중만을 갖고 있다.

이번 동국대 코끼리상 전소사건은 불교상징물에 대한 관리소홀과 캠퍼스내의 심각한 종교갈등이 빚은 어이없는 일이다. 코끼리상은 1년내내 본관건물 뒤 주차장에 별다른 보관 장교 없이 방치돼 있었다. 학교측은 1년에 한번 사용되는 코끼리상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해마다 코끼리상의 보수를 위해 2~3백만원씩을 지원해 왔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종

람대학이라는 특성속에 팽팽히 흐르고 있는 종교갈등의 기류다. 물론 이번 사건이 이교도의 행태라는 증거는 없다. 또 이교도에 의한 것일지라도 방화행위가 타종교인 모두의 뜻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나 타종교 학생의 선교활동에서 빛어지는 학생들간의 물리적 마찰 등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엄 코끼리상의 수난

이제는 학교당국이 앞장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종람대학이라는 위상을 지키면서 타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은 양을 것이다. 전소된 코끼리상을 바라보며 부처님 앞에 섰던 신부님과 십자가 앞에 섰던 스님의 모습이 왜 그토록 아름다웠던가를 생각해 보자.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 업체

봉축행사 이미지 통일 지정 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안불교조계종 봉은사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 불자의집 교패 ▲ 차량용 스티카

▲ 버선 (3가지 색상) ▲ 팬시 스티카(10가지 1세트)

품명	규격	가격
현수막	90cm×6m	40,000원
	90cm×8m	50,000원
	90cm×10m	60,000원
불자의집 교패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차량용 스티카		300원
팬시 스티카	10종류 1세트	1,500원
어깨띠	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500원
리본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20원
귀빈용	3단 고급리본	330원
버선		1,000원
종		400원
풍		300원

▲ 어깨띠 (일반) ▲ 리본 (고급)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 (02)738-8682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과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과일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국판 68페이지,
- 법보시 특가 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부처님의 생애 신국판 76페이지, 정가 1,500원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신국판 84페이지, 정가 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조계사 옆
☎(02)723-4306~7, FAX (02)738-8682

생전예수재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빛과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들에게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국판 76페이지,
- 개장판
- 법보시 특가 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조계사 옆
☎(02)723-4306~7, FAX (02)738-8682

생전예수재용품 보급합니다.